2023학년도 인하대학교 논술 모의고사(인문) 해설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세계사,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국제 관계, 국제 질서, 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기구, 인간 본성, 국제협력, 국가 귀속의식, 세계시민주의	
예상 소요 시간	문항 1: 70분, 문항 2: 50분 / 전체 120분		

2. 출제 의도

본 논술 모의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중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글 자료는 두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지문으로 구성하였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기본 논리, 국제기구의 성격과 역할, 인간의 본성과 그것이 사회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세계시민의식과 국가정체성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제시문을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반론하는데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계에 따른 각국의 득실비교, 기업 운영 중 회의 방식이 부가가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외부 위협에 대항함에 있어 군락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 소비자 효용 증대와 무역의 관계 등 데이터 자료를 제시하여 문항1에서 선택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도록 하였다. 위 논제와 제시문은 『통합사회』, 『경제』, 『정치와 법』, 『세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3.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적용 교육과정 및 과목에 모두 체크)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 ■ 통합사회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가)~(다)	성취기준 1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가) ~ (라)	성취기준 1	3.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2	4.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
(가) ~ (다)	성취기준 1	5.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2	6.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언어와 매체
(가) ~ (다)	성취기준 1	7.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다)	성취기준1	8.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윤리와 사상
(나),(다)	성취기준 1	9. [12윤사04-06] 동·서양의 평화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3.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통합사회
(라)	성취기준 1	10, [10통사05-03] 자원, 노동, 자본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무역의 확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례를 통해 탐구한다.
(가),(다)	성취기준 2	11. [10통사08-02] 국제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통해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세계사
(가),(나)	성취기준 1	12. [12세사02-01] 춘추·전국시대부터 수·당까지 중국사의 전개과정과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가),(나)	성취기준 2	13. [12세사04-01] 그리스·로마 문명의 특징을 이해하고, 고대 지중해 세계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탐구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정치와 법
(가)	성취기준 1	14. [12정법06-02] 국제 문제(안보, 경제, 환경 등)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경제
(라)	성취기준 1	15.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국어	민현식 외	좋은책신사고	2020	214-215	공통	○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20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20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164-207	공통	○
화법과 작문	이도영 외	창비	2020	160-181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20	112-121,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20	152-169	공통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20	40-63	공통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20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20	154-171	공통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206-207	(나), (다)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20	205-207	(나), (다)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0	215-220	(나), (다)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238-243	(가), (다), (라)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20	241-243	(가), (다), (라))	○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20	252-257	(가), (다), (라)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	2020	175-179	(가)	○
정치와 법	이경호 외	미래엔	2020	178-185	(가)	○
정치와 법	정필운 외	비상교육	2020	181-186	(가)	○
정치와 법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87-192	(가)	○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20	39, 116	(가), (나)	○
세계사	이병인 외	비상교육	2020	34-36, 106	(가), (나)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	2020	34-35, 106	(가), (나)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204-210	(가), (다)	○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202-209	(가), (다)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20	208-215	(가), (다)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20	133-143	(라)	○
경제	김종호 외	씨마스	2020	142-154	(라)	○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20	136-143	(라)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마사 너스봄 외	삼인	2003	28-33, 167-168	(다)	○

4.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개념과 지식은 『통합사회』, 『경제』, 『세계사』, 『정치와 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반론, 그리고 재반박에 활용함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논제는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한다.'와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한다.'는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두 주장의 근거는 제시문 (가)~(다) 각각에 모두 제시되었으며, 국제질서에서의 패권국과 국제기구의 관계, 인간 본성과 국제질서의 관계, 인류 보편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계시민주의와 국제질서의 주체로서의 국가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논거와 반박의 근거를 찾도록 하였다.

[문항 2]는 제시문 (라)의 <자료 1>부터 <자료 4>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현실주의 관점 지지를 선택한 경우는 <자료 1>과 <자료 3>을, 자유주의 관점 지지를 선택한 경우는 <자료 2>와 <자료 4>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는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을 비교하는 지문이다. 현실주의는 국가들마다 힘의 균형이 서로 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패권국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주의는 국제관계에서도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될 수 있으며 국제기구는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찾아 국제정치에서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각각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마키아벨리와 맹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입각하여 국제질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는 마키아벨리의 성악설과 그에 따른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가차원의 국력강화 도모를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는 맹자의 성선설에 입각하여 각 국가가 백성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 전쟁을 멀리하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수양하고 확충함으로써 강국과 약소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국제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세계시민주의적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과 국가 중심의 귀속의식을 중시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세계시민주의적 입장은 디오게네스, 스토아학파, 칸트 등 서구 철학의 한 계보를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가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다고 제시하고, 나아가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정치에서의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장하는 복지와 안전, 평화 등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개별 국가 단위의 정책에 의존해서 실현 가능하며 개인의 안전과 평화도 국가라는 현실적 귀속 공동체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를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 중 [자료 1]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특정 당사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로인해 협정 파기까지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상의 자료이다. A, B, C 세 나라의 무역수지는 자유무역협정 전에는 모두 0이다. 그러나 협정 이후 A국은 적자를, B국과 C국은 흑자를 달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인식에 반하는 가상자료를 통해,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자료 2]는 자유주의에 따라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될 경우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2-1>에 제시된 군락의 크기에 따라 개별

개체가 감당해야하는 외부 위협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해석해야 한다. <자료 2-1>에서는 하나의 개체일 때보다 개체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군락의 크기가 커질 경우 발생하는 협력, 시너지로 인해 개별 개체 별로 감당해야 하는 외부위협의 크기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별 개체의 군락 형성과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서도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경우 외부 위협 대응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3]은 일정 수준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상의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C기업은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주당 회의 시간과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에 변화가 없으며 창출 부가가치 또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설계했다. 반면 A기업과 B기업은 실험군으로 두어, 주당 회의 시간이 줄어들고(혹은 늘어나고)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줄어들면(혹은 늘어나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늘어난다(혹은 줄어든다). 이 자료는 수험생이 자료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의 변화의 요인을 찾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료 4]는 자유주의에 따른 두 국가 간 교역이 각국 소비자들의 후생에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4-1>은 각국이 특화를 통해 두 상품 중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교역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국 내에서 생산된 어느 한 상품만을 소비하는 경우 간에 소비자의 후생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자료 4-1>에서는 한 국가(A국)가 두 상품 생산에 있어서 모두 우위인 소위 절대 우위인 상황이지만,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양 국가가 상대적으로 우위인 상품 생산에 특화한 뒤 교역을 통해 서로 교환할 경우 소비자 후생이 두 국가 모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 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			20점
제시문 (가)~(다)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18점)	주장 1(현실주의 관점) 선택의 정당화	주장 2(자유주의 관점) 선택의 정당화	
	- (가)의 논거: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도 힘의 불균형과 약육강식이 존재. 국제기구는 패권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움 - (나)의 논거: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영토 확장도 인간의 본성에 기인 - (다)의 논거: 인간의 복지, 안녕과 평화를 실현하는 주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별 국가이며,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함	- (가)의 논거: 국제문제에도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적용되며 안락과 행복을 위한 국제관계 구축 가능. 국가간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강대국의 힘은 제한되거나 억제될 수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개별 국가에게도 이익 - (나)의 논거: 인간은 인의예지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 전쟁도발로 자국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여 자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함 - (다)의 논거: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으며,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 가능	
글의 논리성 (2점)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table>
<tr><td colspan="3">■ 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 제시</td><td rowspan="3">20점</td></tr>
<tr><td rowspan="2">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18점)</td><td>주장 1(현실주의 관점)에 대한 반론</td><td>주장 2(자유주의 관점)에 대한 반론</td></tr>
<tr><td>- (가)의 논거: 국제문제에도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적용되며 안락과 행복을 위한 국제관계 구축 가능. 국가간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강대국의 힘은 제한되거나 억제될 수 있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이 개별 국가에게도 이익
- (나)의 논거: 인간은 인의예지의 자질을 갖추고 있고 탐욕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 전쟁도발로 자국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여 자국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함
- (다)의 논거: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으며,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가 정착 가능</td><td>- (가)의 논거: 자연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에도 힘의 불균형과 약육강식이 존재. 국제기구는 패권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움
- (나)의 논거: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이기적이고 영토 확장도 인간의 본성에 기인
- (다)의 논거: 인간의 복지, 안녕과 평화를 실현하는 주체는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개별 국가이며,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함</td></tr>
<tr><td>글의 논리성
(2점)</td><td colspan="2">▪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td></tr>
<tr><td colspan="3">■ 반론에서 제시된 논거에 대한 재반박</td><td rowspan="3">20점</td></tr>
<tr><td rowspan="2">제시문
(가)~(다)를
활용하여
반론에 대한
재반박
(18점)</td><td>주장 1(현실주의 관점) 선택 재반박 논리
(예시)</td><td>주장 2(자유주의 관점) 선택 재반박 논리
(예시)</td></tr>
<tr><td>- (가)의 논거 재반박: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체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대의에 헌신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 (나)의 논거 재반박: 인의예지 등 인간의 본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단한 수양이나 국가적 교육이 필요한데 용이하지 않음
- (다)의 논거 재반박: 자유와 관용, 평등을 인류 각각이 향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국의 주권보장이며, 이를 위해 세계시민의식에 앞서 자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더 중요함</td><td>- (가)의 논거 재반박: 국제정치는 강자의 횡포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작동하는 세계임
- (나)의 논거 재반박: 인간 본성이 이기적일지라도 그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호의존적 국제 질서의 구축이 요구됨
- (다)의 논거 재반박: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기후위기, 팬데믹 등 국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애국주의보다 NGO와 같은 세계시민사회적 연대가 중요</td></tr>
<tr><td>글의 논리성
(2점)</td><td colspan="2">▪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td></tr>
<tr><td colspan="3">점수</td><td>60점</td></tr>
</table>

[문항 2]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주장 1: 현실주의 선택	주장 2: 자유주의 선택	
제시문 (라)의 [자료 1]~ [자료 4] 해석	**■ [자료 1]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1-1>, <자료 1-2> 분석: B, C국은 협정 체결 후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 - <자료 1-1>, <자료 1-2> 분석: A국은 협정 체결 후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 해석: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A국의 입장에서 손해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 **■ [자료 3]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3-1> 분석: A, B기업을 실험군, C기업을 대조군으로 선정 - <자료 3-1> 분석: A기업과 B기업에서 주당 회의수와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 증가로 창출 부가가치가 감소 - 해석: 회사를 국제기구로, 사원을 국제기구 참여 국가로 비유하여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비효율이 발생하여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 [자료 2]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2-1> 분석: 군락이 커질 경우 단위개체별 위협의 개수가 감소함 - <자료 2-1> 분석: 단위 개체별 위협 감소의 정도를 개별 군락별(A, B, C)로 수치를 통해 비교 - 해석: 이러한 개별개체의 군락형성을 국제정치에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으로 해석 **■ [자료 4]의 분석과 해석 (20점)** - <자료 4-1> 분석: A국과 B국이 서로 교역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후생을 분석 - <자료 4-1> 분석: A국과 B국이 서로 교역할 경우의 소비자 후생을 분석 - 해석: 두 국가가 교역을 할 경우와 안할 경우의 소비자후생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해석	40점

※ [문항 1]에서 선택한 주장(찬성 혹은 반대)과 다른 주장(반대 혹은 찬성)을 택한 경우, <u>0점 처리</u>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10점까지

6. 예시 답안

6.1 [문항 1]의 현실주의 찬성 예시 답안

현실주의 관점에 찬성한다. 먼저 국가 간 힘의 불균형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법칙이듯이 국제관계에도 패권국 중심의 지배가 불가피하다. 패권국 중심의 정치질서가 잘 작동할 경우 이는 약소국에게도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의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둘째,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호경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셋째, 경제 개발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서 실제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안녕과 평화는 세계시민주의가 아니라 개별 국가의 행정적·법적 규제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간 갈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먼저 국가끼리도 권력이나 힘의 우위를 추구하기보다는 협력관계 구축에 헌신하거나 이를 위한 사회적 행동에 개입한다는 반론이 있다. 그래서 개개의 정부보다는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체계가 국민의 필요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고, 이런 협력이 개별국가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인간 본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론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인간의 실제 본성이 아니라 비정상적 상태로 보는 입장이다. 인간에게는 인의예지의 자질이 있으며, 이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기초이자 국제평화의 토대가 된다. 끝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인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는 국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착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같은 협력체계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개별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대의에 헌신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또한 인의예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도 이것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부단한 수양이나 국가적 교육이 필요하다. 끝으로 세계시민주의가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와 관용, 평등을 인류 각각이 향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자국의 주권보장이고, 이를 위해 세계시민의식에 앞서 자국에 대한 귀속의식이 더 중요하기에 현실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1008자)

6.2 [문항 1]의 자유주의 찬성 예시 답안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중 자유주의에 찬성한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견해이다.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인의예지의 본성과 자질을 지녔고, 이러한 본성이야말로 평화적인 국제질서의 토대이다. 본성에서 벗어난 탐욕에서 전쟁이나 위기가 발생하며 이는 자국 백성들의 삶과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국제질서를 평화롭게 회복하는 것은 본성의 회복이며, 개인과 국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다.

자유주의는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의무에도 부합한다. 디오게네스와 스토아학파, 그리고 칸트 등은 민족적 소속과 국적, 계급과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을 존중하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는 인류 공동체의 행복과 복지에 있다.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존중하듯이, 다른 나라를 존중하며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때 평화와 행복이 실현 가능하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정치학자 미트라니의 주장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안락과 행복을 위한 협력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제기구가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국제기구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의 감소가 주는 안정이 참여 국가들에게 장기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 대해 멜로스의 사례처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을 제시하거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방치하면 무질서가 초래된다거나, 실질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개별 국가이고, 국가 간에는 갈등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이 더 중시된다는 등의 반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제정치는 부분적으로는 강자의 횡포가 존재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적 원칙이 작동하는 세계이다. 설령 인간 본성이 이기적일지라도 그 이기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상호의존적 국제 질서의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기후위기, 팬데믹 등과 같은 국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애국주의보다 NGO와 같은 세계시민사회적 연대가 중요하다.(1050자)

6.3 [문항 2]의 현실주의 찬성 예시 답안

[자료 1]과 [자료 3]이 현실주의 옹호 논거를 제시한다. [자료 1]은 해당 협정 파기가 무역수지 측면에서 A국에게 현실적임을 시사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 B국과 C국의 무역수지는 모두 0이나, 협정 체결 이후 100억 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반면, A국은 협정 체결 전 무역수지 0에서 협정 체결 후 200억 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협정 전 대비 협정 후 B국과 C국은 이득을 보는데 반하여, A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A국은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자국에 이득이 되는 결정이다. [자료 3]은 연간 회의 회수와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줄어듦을 시사한다. 2020년과 2021년 사이 기업 C를 비교군, 기업 A와 B를 실험군으로 보아 확인 가능하다. 기업 A의 연간 회의 회수,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각각 10회, 20명/회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은 3억 원 감소했다. 기업 B의 연간 회의 회수와 회의 당 참여하는 사원수가 각각 10회, 20명/회 감소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은 3억 원 증가했다. 이는 회사를 국제기구로, 사원들을 국가로 비유하여 해석가능하다. 국제기구 참여 국가 간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들 국가에게 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657자)

6.4 [문항 2]의 자유주의 찬성 예시 답안

[자료 2]와 [자료 4]는 자유주의 옹호의 논거가 된다. [자료 2]는 개별 개체들이 형성하는 군락이 커질 경우 단위 개체별로 받게 되는 외부 위협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단위 개체 당 평균적인 위협은 군락 A인 경우 4(4/1)개, 군락 B는 1.33(12/9)개, 군락 C는 1(16/16)개로 감소한다. 군락 형성을 통한 개별 개체 당 위협의 감소는 개체들 간 협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국가 간에도 다자간 협력을 통해 참여국가 당 직면하는 외부 위협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4]는 양 국가가 교역에 참여할 경우 각국 소비자의 효용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교역 없이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A국은 빵 6개 또는 커피 3개, 어느 쪽이든 특화해 생산해 6의 효용을 누리고, B국은 커피 2개를 생산해 4의 효용을 누린다. A국은 B국에 비해 절대 우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따라 A국이 빵에 특화하고 B국은 커피에 특화한 뒤 교역을 통해 A국의 빵 2개와 B국의 커피 1개를 맞교환할 경우, A국 소비자의 효용은 6+α, B국의 효용은 4+α로 더 높아진다. 따라서 A국과 B국 모두 교역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02자)